



1 강원권 의료기기 기업 '제36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1)' 참가 2 홍콩 미용산업박람회 한국관 모습 3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원주로 가자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소금산출렁다리를 시작으로 하늘정원, 소금잔도, 스카이다워, 소금산울렁다리, 미디어파사드, 음악분수, 케이블카 등 다양한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으로 활로 모색 베트남·홍콩 등 해외시장 공략 박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 수출상담회...126만 달러 계약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강원지역 의료기기 제조업체 8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2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3일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 221만 달러(26억 원) 상담 성과와 126만 달러(15억 원)에 달하는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은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해 도내 의료기기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도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제품 시연 세미나에서는 참가 기업들이 자사와 강원라이브스튜디오에서 베트남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을 시연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온라인 '홍콩 미용산업 박람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세계 3대 미용 박람회 중 하나인 '2021 홍콩 미용 박람회'에 참가했다.

전시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11월 8~16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다.

원주공동관에는 메디코슨 등 10개사가 참가해 기업 홍보 영상과 리플릿 등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화상상담 방식으로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참가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온라인 원주공동관(전시관)을 조성해 참가비를 전액 지원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전 제품 홍보를 통해 진성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지원했다.

김광수 원장은 "국내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전시회 지원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3

